

- 사생결단 기도회 열네 번째 - 광야로 인도 하시는 성령님

-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 4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 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 6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8:2-6)

1. “광야”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 A. 나를 낮추시며(to humble) 나를 시험(to test)하신 것
- B.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지를 시험하신 것
- C.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마음이 있는 지 없는 지를 시험하신 것

-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십오일이라
- 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 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 4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1-4)

- 광야 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충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실 것을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만 따르고 순종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해 주어서 먹게 할 것인데, 과연 그들이 먹을 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끝내고 말았으며, 그 사실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뿌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10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종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17:5-11)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 받았지만, 자아로부터는 구원 받지 못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살아간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며, 현재의 불안정함에 익숙해진 채로 열정과 목적의식을 저 멀리 떨쳐 버렸다. 그래도 나쁘진 않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향력을 거의 발휘하지 않고서도 그럭저럭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이클 컷, “절망은 강력한 힘이다”

17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출애굽기 13:17-18)

2. 광야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 A.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해변길이 있었지만, 그곳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
- B.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몰랐고, 심지어 애굽의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라는 상황을 맞닥게 되면 애굽으로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 C.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 D. 홍해 기적을 통해, 애굽의 군사가 다시는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 E.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 F. 광야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최상의 **훈련 과정**이며,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 G.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필요와 원함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길입니다.

67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67)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71)
75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75)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내몰아 준 이 모든 곤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편안하게 어둠 속에서 썩어 가기보다는 매맞고 피 흘리더라도 영광스러운 목표에 도달하는 편이 훨씬 낫다. 순탄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영혼의 구원에 대해 알지 못했다.

- 아브라함 폴잭,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탈출한 유대인